

해외출장
보고서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근현대건축물의 가치 기준에 대한 해외제도 사례조사

2017.7.8 - 7.16
프랑스(파리, 센생드니, 릴)

이규철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 례

제1장. 출장 개요	1
1. 개요	1
2. 목적	2
3. 세부일정 및 업무수행 계획	2
제2장 건축 및 산업유산 관계자 면담	9
1.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자체 건축유산 관계자 인터뷰	9
2. 오드프랑스(Hauts-de-France) 지역의 문화담당국(DRAC) 관계자 인터뷰	14
3.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관계자 인터뷰(1)	20
4.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관계자 인터뷰(2)	25
제3장 건축 및 산업유산 활용 사례 답사	29
1. Halle Freyssinet(알 프레시네)	29
2. Les Frigos Building(레프리고)	32
3. ENSA Paris Val de Seine(파리 발 드센 건축 학교)	33
4. Centre National de la Dance(국립 무용센터)	35
5. MAGASINS Généraux(мага장 제네로)	38
6. Le104(르쌍까르트)	40
7. Musée d'Art et d'Industrie André Diligent(앙드레 딜리장)	41
8. The Villa Cavrois(빌라 카브르와)	43
제4장 출장 성과	45
[부록] 취득자료	47

제1장. 출장 개요

1. 개요

■ 과제명 :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 대상지 : 프랑스 파리, 센생드니, 릴

■ 기 간 : 2017년 7월 8일(토) - 7월 16일(일), 7박 9일



[그림 1] 출장지역-프랑스 파리, 센생드니, 릴

2. 목적

- 근대건축물의 가치 기준에 대한 해외 제도의 사례로서, 프랑스의 20세기 건축유산(Label patrimoine du XXèmesiècle) 제도와 2016년 제정된 LCAP법(Loi relatif à la liberté de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의 시행현황을 조사하고자 함
- 두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현대 건축유산의 가치기준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관계자 인터뷰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

3. 세부일정 및 업무수행 계획

1)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자체 방문

■ 개요

- 프랑스에서 가장 풍부한 산업문화유산을 지닌 지자체중 하나인 센생드니의 문화유산 분과(Service patrimoine culturel du Conseil départemental de la Seine-Saint-Denis)는 역사학자, 고고학자, 건축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의 산업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을 주 업무로 한다.

■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자체의 산업문화유산 담당자 인터뷰 및 자료 수집

-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13:00~16:00
- 장소: 센생드니 문화유산 분과(Service patrimoine culturel du Conseil départemental de la Seine-Saint-Denis)
- 참석자
 - 소외: Estelle Lusseau(현대 건축유산 분과 분과장, 문화유산 담당 건축가), Antonio Furio(현대 건축유산 분과, 산업유산 담당), Benoit Pouvreau(현대 유산 분과, 사회주거와 20세기 건축문화유산 담당), 정희원(통역)
 - 소개: 이규철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o Antoine Furio

- 문화재 보전에 대한 관심으로 역사와 도시를 전공하였고, 2002년 센생드니 지역의 산업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자로 입사
- 센생드니 지역의 산업문화유산 규모가 방대하고, 역사적 기념물이라는 기존의 틀로 이들의 보전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 따르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요소들을 평가하고 이들의 보전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공식 문건(지역 도시 계획(PLU), 협의 정비 구역(ZAC) 등)에 주요 산업문화유산을 등재시키는 업무를 담당
- 이밖에도 센생드니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다수의 저서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으며, 도시 문제와 산업 문화 유산의 재전환 등의 쟁점에 관한 학회와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있음

2) 오드프랑스(Hauts-de-France) 지역의 문화담당국(Drac) 방문

■ 개요

- DRAC(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은 1963년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 문화분야 담당국으로 각 지역별로 중앙 정부의 문화정책이 직접 실현되는 기관이다. 건축, 고고학, 아카이브, 영화, 창작예술, 예술교육, 문화재, 극장과 음악 등 모든 종류의 문화업무를 맡고 있다. 2010년에는 지역 건축과 문화재부(les services départementaux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가 통합되었다. 역사적 기념물 보존부(Conservation rég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건축과 문화재부(Service territorial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고고학 지역부(Service régional de l'archéologie), 창작과 문화보급부(Pôle Création-Diffusion)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형 예술 활성화와 교육에 대한 일도 담당하고 있다.

■ 오드프랑스(Hauts-de-France) 지역의 문화담당국(Drac) 건축유산 담당자와 건축유산 기록정보 담당자 인터뷰 및 자료 수집

- 일시: 2017년 7월 12일(수), 09:00~14:00
- 장소: 릴(Lille) DRAC 회의실

- 참석자

- 소외: Delphine Lacaze(역사적 기념물 분과 분과장, 지역 큐레이터), Olivier Le Moine(역사적 기념물 분과, 지역 큐레이터), Yves Ledun(기록정보 분과), 김나래(통역)
- 소내: 이규철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3) 프랑스 문화부 관계자 인터뷰

■ 개요

- 프랑스 정부에서 근현대 건축유산 관련 업무는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의 건축과 조경 품질국(bureau de la Qual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ysage)과 건축 프로모션/네트워크국(bureau de la Promotion de l'architecture et des Réseaux)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두 기관은 문화부 건축유산분과(direction générale des Patrimoines) 내 건축분과(direction de l'Architecture)의 하위 부서인 '생활환경과 건축물의 품질과 건축'분과(sous-direction de l'Architecture, de la Qualité de la construction et du cadre de viesous-direction de l'Architecture, de la Qualité de la construction et du cadre de vie)에 속해 있으며, 문화부 내에서 건축 정책을 입안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LCAP법, 국가 건축 전략, 건축 창조 지원, 건축/도시/조경 품질의 진작 등이 대표적인 사안이다.

■ 문화부 국가 도시-건축가 겸 건축과 조경 품질과 담당자 인터뷰 및 자료수집

- 일시: 2017년 7월 13일(목), 14:00~17:00
- 장소: 문화부 청사 옆 café blanc(문화부 청사 수해 복구로 장소 변경)
- 참석자
 - 소외: Sophie Masse, 정희원(통역)
 - 소내: 이규철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o Sophie Masse

- 건축과 조경 품질과(bureau de la Qual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ysage), 국가 건축-도시계획가
- 근현대 건축유산 관련 연구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근현대 건축유산 프로젝트의 심사 등에 참여
- 대학에서 근현대 건축유산 관련 강의 담당
- 건축과 조경 품질과에서는 20세기(특히 후반부) 건축물의 감정을 담당하며 연구와 출판, 주요 사례 관리, 정부 부처간 협력 사업(주거, 도시 담당 부처, 국가 도시재생 기구 등)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문화부 건축 프로모션/네트워크과 담당자 인터뷰 및 자료수집

- 일시: 2017년 7월 13일(목), 17:00~19:00
- 장소: 문화부 청사 옆 café blanc(문화부 청사 수해 복구로 장소 변경)
- 참석자
 - 소외: Pascale Corré, 정희원(통역)
 - 소내: 이규철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o Pascale Corré

- 건축 프로모션/네트워크과(bureau de la Promotion de l'architecture et des Réseaux) 과장
- 건축 프로모션/네트워크과에서는 VPAH (villes et pays d'art et d'histoire: 역사와 예술의 도시) 와 ACR (architecture contemporaine remarquable, 뛰어난 현대 건축물: 기존의 '20세기 건축유산' 대체)의 인증(label)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

4) 현장답사

■ Magasins Généraux at Pantin

- 파리 북동쪽의 우르크 운하(canal de l'Ourcq)를 끼고 자리한 센생드니의 꼬문인 Pantin에 위치
- 운하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 위치한 항구의 상업건물을 사무공간과 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
- 사이트 일대가 ZAC으로 개발되면서 같은 시기에 업무 건물로 재활용되었는데, 현재는 BETC라는 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입주
- 웹페이지:<http://www.pavillon-arsenal.com/fr/paris-dactualites/10454-reconversion-des-anciens-magasins-generaux.html>



[Magasins Généraux at Pantin]

(출처: <http://www.pavillon-arsenal.com/fr/paris-dactualites/10454-reconversion-des-anciens-magasins-generaux.html>)

■ Halle Freyssinet

- 파리 13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인접한 철도산업의 부대시설
- Freyssinet는 건물의 구조기술자 이름으로, 그만큼 구조적으로 진보적인 기술을 사용한 건물
- 입지 여건도 특이하고 규모가 큰 시설로서, 활용을 둘러싼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
- 프랑스의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대형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활용 용도가 결정되었고, 2017년 7월 개장 예정

- 빌모트(Wilmotte & Associés architectes)에서 리노베이션 계획
- 웹사이트: <http://www.wilmotte.com/fr/film/9/La-Halle-Freyssinet-en-2016>



[Halle Freyssinet]

(출처: <http://www.wilmotte.com/fr/film/9/La-Halle-Freyssinet-en-2016>)

■ André Diligent (안드레 딜리장)

- 1932년 건립된 La Piscine 시립 수영장을 예술과 산업 박물관으로 리노베이션
- 프랑스 섬유산업 혁명의 도시 루베(Roubaix) 지역의 근현대 건축물 재생 프로젝트
- 웹사이트: <http://www.roubaix-lapiscine.com/>



[André Diligent]

(출처: <http://www.roubaix-lapiscine.com/le-musee/historique/>)

[표 2] 세부 일정표

일 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 정
7월8일 (토)	11:00 16:00	인천	파리	인천-파리 이동 (12시간)
7월9일 (일)	10:00 17:00	파리 센 생드니		[현장답사] Magasins Généraux at Pantin, Halle Freyssinet 등 답사
7월10일 (월)	10:00 18:00	파리		[현장답사] 파리 디드호 대학(파리7대학), ENSAPVS, Bercy Village 답사
7월11일 (화)	13:00 16:00	파리 센 생드니		[회의1]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자체의 산업문화유산 담당자 Antoine Furio 인터뷰 및 자료 수집
7월12일 (수)	07:46 08:45	파리	릴	파리-릴 이동(TGV) (약 1시간)
	09:00 14:00	릴		[회의2] 오드프랑스(Hauts-de-France) 지역 문화담당국(Drac) 건축유산 담당자와 기록정보 담당자 인터뷰 및 자료수집*
	15:00 19:00			[현장답사] 앙드레 딜리장(André Diligent) 예술과 산업 박물관 등 20세기 건축유산 답사
	19:13 20:15	릴	파리	릴-파리 이동(TGV) (약 1시간)
7월13일 (목)	14:00 19:00	파리		[회의3] 문화부 국가 도시-건축가 Sophie Masse 인터뷰 및 자료수집** [회의4] 문화부 건축 프로모션/네트워크과 과장 Pascale Corré 인터뷰 및 자료수집**
7월14일 (금)	10:00 17:00	파리		[현장답사] ZAC 일스강-히브 드 센(Île Seguin-Rives de Seine) 일대 답사
7월15일 (토)	21:00	파리		파리-인천 이동 (11시간)
7월16일 (일)	15:00	인천		

* 오드프랑스(Hauts-de-France)는 2016년 1월 1일 레지옹 개편에 따라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와 피카르디(Picardie)가 합병되면서 신설된 명칭으로, 당초 계획한 회의와 동일함

* 7월 13일(목)에 예정되었던 일 드 프랑스 (ILE DE FRANCE) 문화담당국(Drac) 문화유산 담당자 Michaël de Saint-Chéron 박사 인터뷰는 전문가 개인사정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오드프랑스(Hauts-de-France)의 문화유산국 기록정보 담당자와의 추가 인터뷰로 변경함

** 7월 10일(월)에 예정되었던 문화부 회의는 문화부 청사의 수해 복구로 인해, 7월 13일(목)로 일정 및 회의장소 변경함

제2장 건축 및 산업유산 관계자 면담

1.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자체 건축유산 관계자 인터뷰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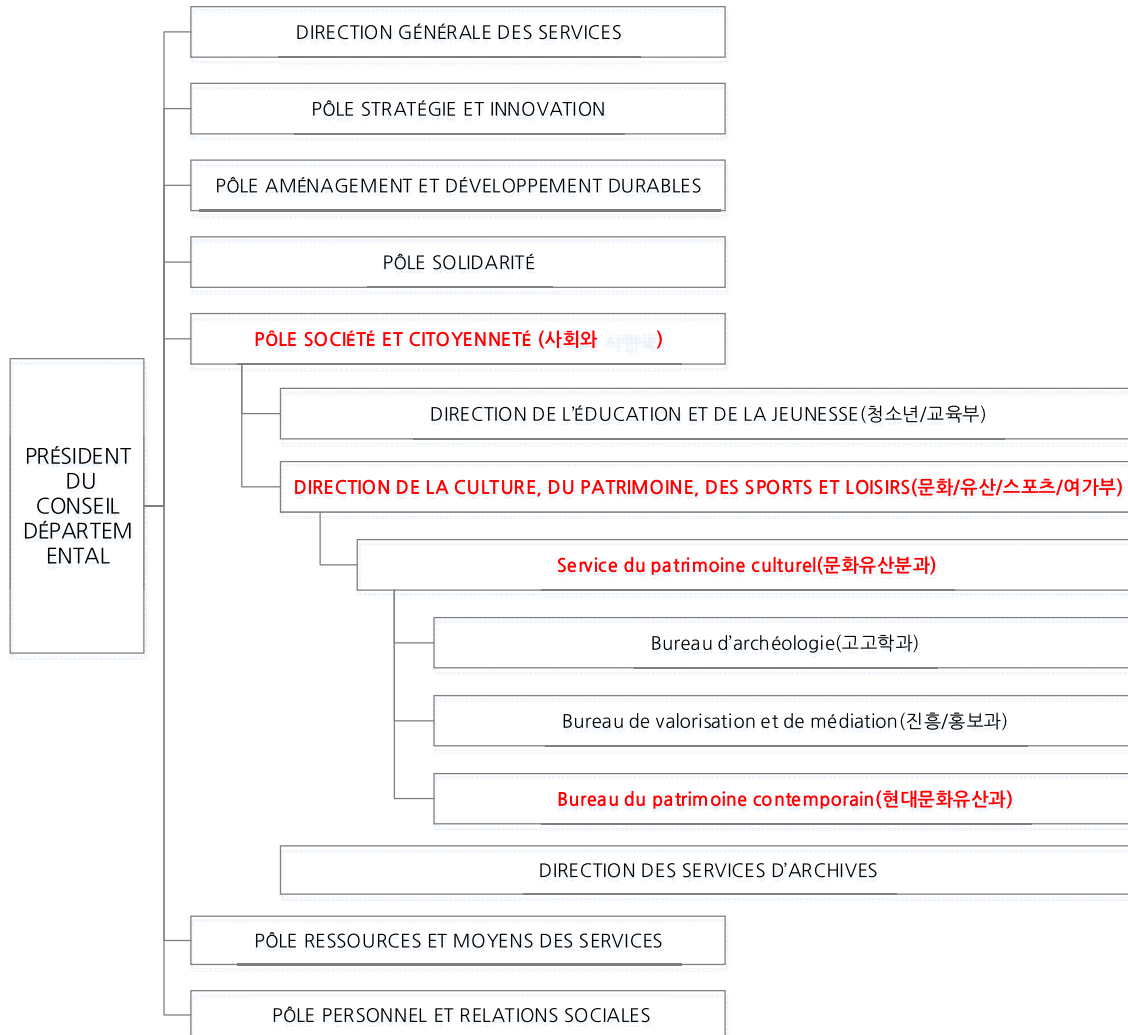
-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13:00~16:00
- 장소: 센생드니 데파르트망(Seine-Saint-Denis Département)의회 문화/유산/스포츠/여가부 회의실
- 인터뷰 대상자: Estelle Lusseau(현대문화유산과 과장, 문화유산 담당 건축가), Antonio Furio(현대문화유산과 산업유산 담당), Benoit Pouvreau(현대문화유산과 사회주거와 20세기 건축문화유산 담당)

■ 인터뷰 내용

- 센생드니의 문화유산국(Service patrimoine culturel du Conseil départemental de la Seine-Saint-Denis)에 대한 소개
 - 생드니 대성당 유적에 대한 고고학으로 시작하여, 건축유산 전체로 확대되었음
 - 2001년 지방분권화에 따라 센생드니에서 중앙정부와 의정(protocol)을 맺어 함께 건축유산 조사를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는 독립적으로 건축유산을 조사 및 관리하고 있음
 - 막무가내식 개발과 건축유산의 훼손, 철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직시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정치적 의지가 반영되어, 본래는 헤지옹(région)의 업무로 분류되는 문화유산 조사/관리 업무를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건축유산을 관리하는 프랑스 전체 5개 데파르트망 중 하나일 정도로 건축유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일반적으로는 헤지옹에서 관리함)¹⁾ - 고고학, 진흥/홍보, 현대문화유산분과로 구분, 현대문화유산분과(Bureau du patrimoine contemporain)에서 건축유산을 담당하고 있음
- 센생드니 문화유산 관련 조직도

1) 2017년 현재 프랑스는 18개의 헤지옹과 101개의 데파르트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센생드니 지자체 행정 조직도(Organigramme des services du département)²⁾



• 현대문화유산과의 구성 및 업무

- 현대문화유산과는 산업유산, 사회주거, 공공건축 등의 전문가로 인력 구성
- 문화부에서 문화유산의 관리와 연구 담당, 헤지옹(센생드니 등 5개 데파르트망 포함)에서는 앙병페르(inventaire: (목록 작성을 수반하는) 심층 조사) 활동과 DRAC (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³⁾과 협력 업무를 담당함
- 앙병페르(inventaire) :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 시절(1958~1968)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모든 예술자산(흔히 순가락에서 교회까지라는 말로 표현)의 자료 수집과 목록화 작업

2) <https://www.seine-saint-denis.fr/-Organigramme-des-services-du-departement-.html>참조

3) 인터뷰에서 설명한 바로는 헤지옹의 문화유산 조사/관리 업무는 지방분권화(décentralisation)의 산물로 이해해야 하고, DRAC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는 중앙정부 업무의 지역 분산화(déconcentration)로 이해해야 한다고 함. 이는 DRAC이 중앙 정부와 좀 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으로 판단됨.

- DRAC(헤지옹 문화사무국, 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문화부의 하위기구로, 헤지옹마다 1개씩 설치되어 문화유산의 보호, 등록(라벨 제도 포함), 심사, 지원 등의 활동

• 센생드니의 산업유산 관리

- 프랑스 전체 45,000개(2015년 현재)의 지정문화재(classé) 중, 산업유산이 750여 개(1.5%)가 있음
- 산업유산은 1982~1983년경 문화부에 산업 문화유산 관련 부서가 생 기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판단이 어렵고, 개발이익에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기존 보존개념과는 다른 차원으로 용도 변경 등을 통한 재 활용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됨
- 센생드니의 클라셰(지정문화재, classé)와 에스크리(등록문화재, inscrit) 71개 중 7개가 산업유산임
- 산업유산의 개념이 처음 정착된 영국에서는 철로, 항구 등의 인프라까지 산업유산으로 보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18세기의 풍차에서부터 공장과 연관된 노동자 주거/공동시설, 20세기에 조성된 핵발전소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용도는 다양하되 산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중심으로 산업유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센생드니에서는 산업유산과 사회주거가 주력 건축유산인데, 이는 수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그동안 저평가 되어 온 건축유산 중 산업유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PLU(도시지역계획, Plan local d'urbanisme) 등을 활용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센생드니의 경우, 역사와 예술의 도시 라벨(Label Ville et Pays d'art et d'histoire) 제도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건축유산(산업유산 포함)을 조사하여 도시지역계획(PLU)에 반영하기 위해 현대문화유산분과에서 조사(inventaire) 업무를 수행함
- 센생드니는 현대문화유산 분과에서 조사하여 권고한 건축문화유산을 대부분 도시지역계획(PLU)에 반영하고(280여개 부지 중 250여개 대지가 반영됨),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은 없지만 건축적 가치를 설명하고, 소유주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변경 시 건축유산의 가치를 보전/증진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
- 산업유산의 관리를 위해 보호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가치가 있는 건축 유산의 소유주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치를 환기시키고 증진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연구 보고서와 홍보물 발간하고 연구/조사 결과를 PLU에 반영하는 형태)
- 센생드니 데파르트망에 속하는 코뮌(commune : 프랑스 지자체의 행정적 최소 단

위⁴⁾의 개발 프로젝트 등에 개입하여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호의 요소와 방법 등을 권고(역사학자 또는 문화재 전문 건축가 등과 협력)하기도 함(공모지침을 만들기 이전 지침사항에서 권고사항이 반영되기도 함)

- 산업유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 기준은 현재 없음

• ACR(architecture contemporaine remarquable, 주목되는 현대건축) 제도

- 20세기 건축유산 라벨(Label Patrimoine du XXe siècle)제도가 시행된 지는 15년 정도 되었고, 건축물의 가치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헤지옹에 설치된 DRAC에서 관리하고 있음

-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하여 대상을 차별화하고 있음 :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는 사회주거(1945-75년), 종교시설, 학교, 광역 공공시설(대사관, 발전소 등)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운영

- LCAP(Loi relatif à la liberté de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법에 따라 20세기 건축유산 라벨이 ACR(architecture contemporaine remarquable)로 변경: 20세기 건축유산이 모두 ACR로 전환됨

- ACR은 건축한 지 100년 이내로서, 100년의 시간을 두고 보호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주목할 만한 건축물이 대상임

- 2017년도에는 고등학교 건물의 ACR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헤지옹에서 목록을 구축하여 최종 등록 목표인 45개로 개수를 한정하는 작업 중이며, 이를 위해 담당자들이 1년에 4회 정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함

- ACR 제도는 20세기 건축유산 제도와 달리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고, 건축허가에 대한 정보를 DRAC에 보고해야 함

- ACR 제도에서 주민 지원은 없고, 건축 유산의 가치 진작과 공론화의 의미로서 건축물에 새로운 운명을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어, 건축물의 보호보다는 가치를 환기시키고 공론화하는 건물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회주거에 대해서는 ACR로서 거부감도 있지만, 대체로 시민 인식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 ACR 가치기준: 관련 출판물 발간 여부, 건축가, 원형유지, 건축기술의 혁신성/시대성 등⁵⁾

- ACR 제도의 가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치기준보다는 DRAC의 위원회에서 담당자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4) 광역시(메트로폴)의 경우 다수의 코뮌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ville)는 하나의 코뮌에 해당하며 건축 허가 권한은 코뮌의 수장인 시장(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이 갖고 있음.

5) ACR의 가치기준에 대해서는 문화부 관계자 인터뷰에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 LCAP법은 아직 제정 초기로서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았고, 획기적인 변화보다는 기존의 제도에서 용어와 시각을 바꾸는 교정의 차원으로 이해됨
- LCAP법 제정을 통해 많은 논의가 있어서 공론화된 의미가 있으나 아직은 효과가 미진하며, 산업유산의 발굴을 위해서는 문화부 아래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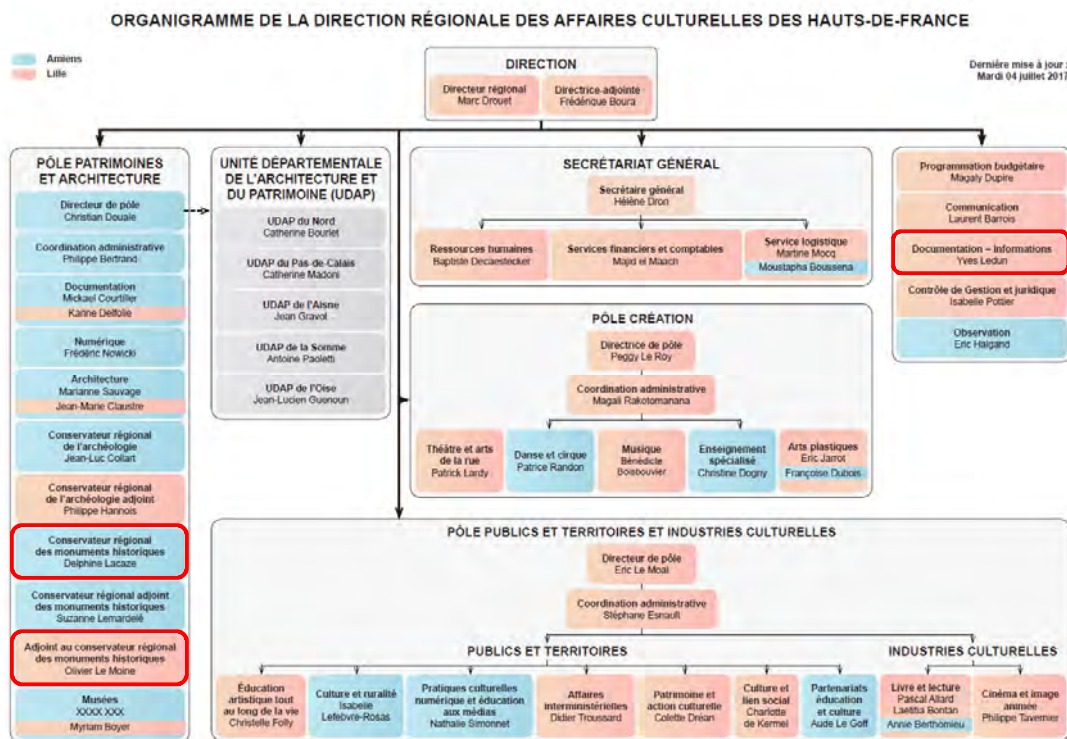
2. 오드프랑스(Hauts-de-France) 지역의 문화담당국(DRAC) 관계자 인터뷰

개요

- 일시: 2017년 7월 12일(수) 09:00~14:00
- 장소: 릴(Lille) DRAC 회의실
- 인터뷰 대상자: Delphine Lacaze(역사적 기념물 분과 분과장, 지역 큐레이터), Olivier Le Moine(역사적 기념물 분과, 지역 큐레이터), Yves Ledun(기록정보 분과)

인터뷰 내용

- 오드프랑스 지역 DRAC의 주요 업무



[그림] 오드프랑스 지역 DRAC의 조직도(붉은색 박스 표기가 인터뷰 대상자)

(출처: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Regions/Drac-Hauts-de-France/La-DRAC/Qui-fait-quoi-a-la-Drac-Hauts-de-France>)

- DRAC은 지자체 내 조직된 문화부 대표 기관으로, 지역의 건축유산 조사/연구 수행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오드프랑스는 섬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이 발달한 지역으로 산업유산이 많이 분포된 것이 특징적인데, 현재 섬유 관련 산업유산은 많이 멸실되었고, 광산 관련 산업유산은 군으로 묶어서 광역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광산 관련 산업유산 중에서 지정문화재이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이 4건이 있음(Le 11/19 Loos-en-Gohelle, Le 9-9bis Oignies, Le site de Wallers à Arenberg의 세 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먼저 등록되었고, 79개의 건물을 문화유산 지구로 묶어서 지정한 Le Centre historique minier à Lewarde는 그 후인 2009년에 등록)
- 지정문화재 제도(Classement en Monument historique)와 20세기 건축유산 라벨제도(Label Patrimoine XXe siècle)의 차이
 - 지정문화재는 건축행위 등의 규제가 있는 제도인 반면에 라벨제도는 등록된 이후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만 있으며, 법적인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음(지정문화재는 국가소유나 개인소유 건물 모두 보수공사 시 DRAC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하나, 라벨제도로 지정된 건물은 신고만 필요)
 - 반면에,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보수공사 시 공사금액에 대한 비용지원이 있으며 라벨제도는 수리 시 비용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음. 라벨제도는 건축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데 의의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임
- ACR(Architecture contemporaine remarquable) 제도
 - 20세기 건축유산 라벨제도가 개편된 제도로, 대중들로부터 현대 건축유산의 관심을 높이고 멸실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함
 - DRAC에서 자료수집 후 데파르트망(departement) 행정단위별로 구성된 ABF(Architectes des Bâtiments de France, 건축사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선정 후보군 결정
 - 라벨 대상 건축물의 후보군을 선정하여 건축문화재 지역위원회(Comission régionale du patrimoine et de l'architecture, CRPA) 심의를 통해 라벨 부여여부를 결정
 - 라벨 대상 건축물의 선정 기준으로 현대 건축유산의 보호, 상징적 건물(유명건축가, 시대적 대표성 등), 실용성(대중성, 유용성)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왜/무엇을/어떻게 등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가치 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음
 - 20세기 건축유산 라벨제도에 비하여, 휴가/여가 시설 등을 포함하여 대상의 범위가 넓어짐
 - (등록 신청) DRAC 관계자, 전문가, 시민, 지역 협의회 등이 건축유산의 등록 제안가능

- (선정/등록 심의) 문화재는 문화부에서 주관하지만, ACR은 DRAC에서 주관
- (심의위원 구성) 전문가, DRAC 관계자, 시의원 등
- DRAC에서는 건축물의 수선 등에 대한 허가 (ACR 수선은 허가사항이 아님)
- ABF는 지역의 건축유산, 간판 등 건축 및 도시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대부분의 업무과정에서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예전의 20세기 건축유산 라벨제도는 지정문화재와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ACR 제도로 변경되면서 중복이 될 수 없게 되었음
- ACR 제도의 대상은 건축된 지 100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로 한정하며, 100년이 경과되면 역사적 기념물 즉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DRAC에서 재검토함
- ACR로 등록된 이후 현상 변경이 예정되면 DRAC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DRAC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지정문화재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문화재 지역위원회(CRPA)를 소집할 수 있음
- 문화재와 ACR의 가치기준은 유사하고, 중요도에 따라 구분됨
- ACR 제도로 변경하게 된 근거가 되는 LCAP(Loi relatif à la liberté de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법이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⁶⁾, 아직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은 터라 법적 규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 또한 소유주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정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1913년 문화재법이 생긴 이래 계속 보완되어 왔고, 시스템에 의한 강제 규정보다는 사람들의 문화재 개념과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오드프랑스의 건축유산 사례 소개

- 후베(Roubaix) 지역의 앙드레 딜리장(André Diligent) :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건축유산을 리노베이션하여 지역의 재생에 성공한 사례로, 리노베이션을 시행할 때 남아있던 입면은 원형을 남기고 나머지는 복원함(예를 들어 랭스의 시네마 건물이나 벨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음, 'Façadisme')
- 빌라 카브르와(Villa Cavrois) : 20세기 건축유산 ->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로 변화된 사례로 근대건축물의 대표적 사례임.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로 20세기 건축유산 라벨 제도로 관리되었고, 소유주의 건물용도 변경 등을 우려하여 등록 및 지정문화재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음

6) 2016년에 7월에 제정되고 2017년 3월에 간략한 법 내용에 대한 지침이 DRAC에 내려온 상황

- 1932년 건축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점령으로 많이 파괴되었으며, 1960년대에 개축 및 2개 실의 확장공사를 시행함. 1960년대 공사 당시의 사진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복원함(60년대의 가치 인정)



앙드레 딜리장



빌라 카브흐와

• 기타 사항

-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된 건물 보호에 관한 매뉴얼(La protection des immeubles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 : 현행법 이전의 매뉴얼로 가치기준에 대한 내용보다는 ‘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놓았으며, 선정 과정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
- 역사도시 경관 라벨(Villes et Pays d’art et d’histoire, VPAH) : 역사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지구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DRAC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가치와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관광 목적이 담겨있음

■ Hôtel Scrive à Lille 답사

- 1710년부터 1720년 사이에 3개의 저택들을 중심으로 지어진 호텔 스크리브는 1773년부터 이웃의 인접건물을 사들여 점차 확장됨
- 1821년에는 린넨 제작공장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그 이후 개축, 확장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이 진행되었는데, 말메종(Malmaison) 도서관을 모방한 방과 아르 데코 양식의 목욕탕 등이 특징적임
- 1976년 이후부터는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의 릴 DRAC(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 건물로 사용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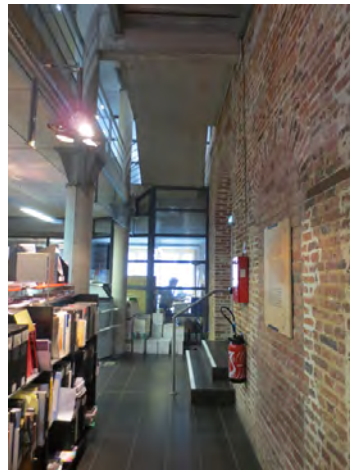
증축한 현관



말메종 도서관의 인테리어를 모방해놓은 방



내부계단



기존 건축물에 이어 증축한 부분



건물 안내를 해 주신 Yves Ledun씨



DRAC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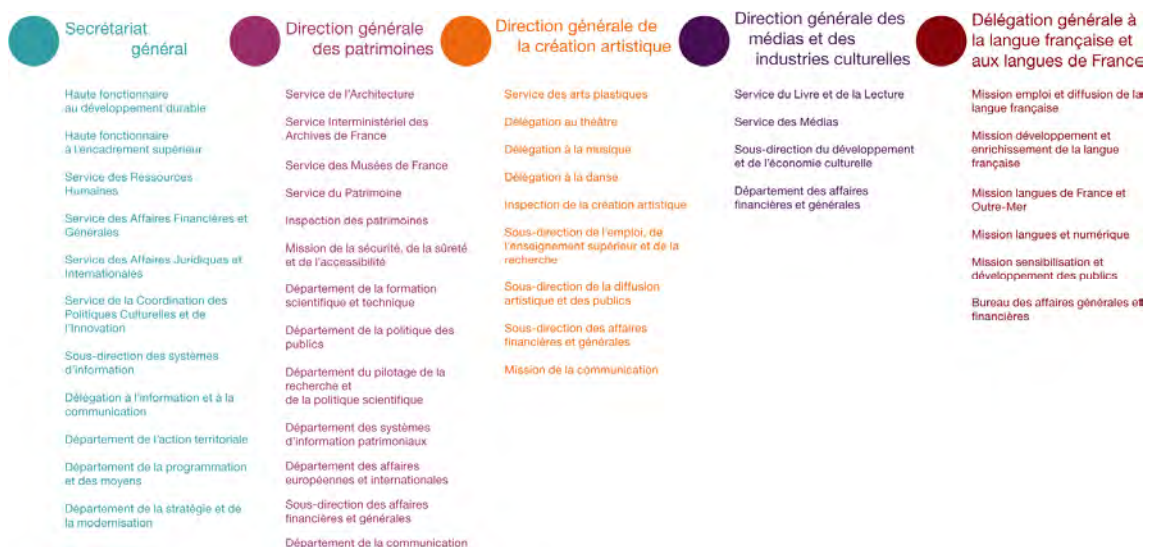
3.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관계자 인터뷰(1)

개요

- 일시: 2017년 7월 13일(목), 14:00~17:00
- 장소: 문화부 청사 옆 café blanc(문화부 청사 수해 복구로 장소 변경)
- 인터뷰 대상자: Sophie Masse(건축과 조경 품질과, 국가 건축-도시계획과)

인터뷰 내용

- 문화부 direction de l'Architecture)의 주요 업무
 - 문화부(Le ministère des Affaires culturelles)는 1959년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 시절에 최초로 조직된 부서로서,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가 초대 문화부 장관이며, 1997년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7년 6월 출범한 마크롱 정권 하에서 문화통신부에서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로 부처 명이 변경됨
 - 문화부는 문화재 정책 추진의 총책임기관으로서, 문화재의 보존, 복원, 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자문, 통제 및 평가의 방식 설정 등을 담당하고 있음. 문화부의 문화유산 부서는 문화재의 관리와 평가를 담당하며, 지방의 문화유산 관련 기관은 문화부에서 설정한 관리와 평가를 실제로 적용하는 역할을 함



[프랑스 문화부 부서]

(출처: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Nous-connaître/Organisation/Directions-d-administration-centrale/La-direction-generale-des-patrimoines>)

- 문화부의 부서는 종합부서실(Secrétariat général), 문화유산(건축포함, Direction générale des patrimoines), 예술·창작(Direction générale de la création artistique), 미디어 및 문화산업(출판 등, Direction générale des médias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프랑스 언어 총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의 5개의 부서로 구분
- 문화유산 분과: 박물관, 아카이브, 문화재(지정/등록), 건축(20세기 이후, ACR 포함)으로 구분
- 건축국(direction de l'Architecture): 건축 고등교육과 연구(Sous-direction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en architecture), 건축/건조 환경/건설 품질(Sous-direction de l'architecture, de la qualité de la construction et du cadre de vie) 분야로 구분되고, 후자는 다시 건축 프로모션/네트워킹과(Bureau de la promotion de l'architecture et des réseaux), 건축 조경 품질과(Bureau de la qual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ysage), 건축업/건축사/건축사업과(Bureau des professions, de la maîtrise d'œuvre et de la commande architecturale)로 구분됨

Service de l'architecture	Service interministériel des archives de France	Service des musées de France	Service du patrimoine
Agnès VINCE	Hervé LEMOINE	Marie-Christine LABOURDETTE	Jean-Michel LOYER-HASCOËT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us-direction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en architecture Christian-Lucien MARTIN Adjoint au sous-directeur Jean-François BRIAND Bureau de la coordination et du pilotage du réseau des écoles Nathalie JACOB Bureau des enseignements Isabelle PHALIPPON-ROBERT Bureau de la recherche architecturale, urbaine et paysagère Philippe GRANDVOINET Sous-direction de l'architecture, de la qualité de la construction et du cadre de vie Hélène FERNANDEZ Adjoint à la sous-directrice Simon QUETEL Bureau des professions, de la maîtrise d'œuvre et de la commande architecturale Stéphanie CELLE Bureau de la qual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ysage Vincent LACAÏLE Bureau de la promotion de l'architecture et des réseaux Pascale COR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us-direction de la politique archivistique Claire SIBILLE-DE GRIMOÜARD Bureau du contrôle et de la collecte des archives publiques Aude ROELLY Bureau de l'archivage numérique, des normes et référentiels Stéphanie ROUSSEL Bureau des missions et de la coordination interministérielle Françoise JANIN Mission aux archives privées Frédérique BAZZONI Sous-direction de la communication et de la valorisation des archives Bruno RICARD Bureau de l'accès aux archives et de la diffusion numérique Mathieu STOLL Bureau des études et des partenariats scientifiques Jean-Charles BEDAGUE Délégation à la coordination et au pilotage des services publics d'archives Hervé DELMARE Centre national du microfilm et de la numérisation Henri-Luc CAMPLON Mission aux commémorations nationales Philippe-Georges RICH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us-direction des collections Vincent LEFEVRE Adjoint au sous-directeur Claire CHASTANIER Bureau de l'inventaire des collections et de la circulation des biens culturels Philippe SAUNIER Bureau des acquisitions, de la restauration, de la conservation préventive et de la recherche Dominique DUPUIS-LABBE Bureau de la diffusion numérique des collections Laurent MANŒUVRE Sous-direction de la politique des musées Blandine CHAVANNE Adjoint au sous-directeur (pôle muséographie) Christophe CLEMENT Adjoint au sous-directeur (pôles stratégies, réseaux et tutelles) Franck ISAIA Bureau de la politique d'investissement Claire CAMERON Bureau de l'innovation et du conseil technique Isabelle CABILLIC-QUARDON Bureau du pilotage des musées nationaux Katell GUIZIOU Bureau des réseaux territoriaux Pierre MAC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us-direction des monuments historiques et des espaces protégés Emmanuel ÉTIENNE Adjoint au sous-directeur Stéphane CREANGE Bureau de la protection des monuments historiques Michel POTIER Bureau de la protection et de la gestion des espaces Hadja DIAF Bureau de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immobilier Frantz SCHOENSTEIN Bureau de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mobilier et instrumental Judith KAGAN Bureau de l'ingénierie et de l'expertise technique Jean-François DELHAY Sous-direction de l'archéologie Benoît KAPLAN Adjointe au sous-directeur Agnes MATHIEU Adjoint au sous-directeur Bernard RANDOIN Bureau de l'élaboration et de l'utilisation des inventaires archéologiques Frédérique FROMENTIN Bureau du suivi des opérations et des opérations archéologiques Isabelle AUBRUN Bureau de la gestion des vestiges et de la documentation archéologiques Charlotte FEFFER-PERIN Centre national de la Préhistoire Geneviève PINÇON Mission de l'inventaire général du patrimoine culturel Sophie CUEILLE

[프랑스 문화부 문화유산 분과 조직도]

(출처: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Nous-connaître/Organisation/Directions-d-administration-centrale/La-direction-generale-des-patrimoines>)

- 프로모션/네트워킹과: VPAH(Label Ville et Pays d'art et d'histoire), ACR (architecture contemporaine remarquable),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적 건축 교육, 젊은 건축가/조경가 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건축 조정 품질과: 구성원 모두 건축가, 20세기 건축(사회주거 등)의 조사 연구, 개발 사업 등 현안에 대해 문화부 외의 타 기관과의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가 건축-도시계획가(AUE, Architecte Urbaniste d'Etat) : 프랑스 국가 건축-도시계획가는 국가건축고시를 통과한 공무원들로, 프랑스 내 약 400-500명 정도가 있음

• 건축 유산 관련 기구

- 문화부: 제도의 운영 및 관리 담당
- DRAC(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헤지옹에 설치된 건축 유산을 관리하는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지역별로 문화부의 문화정책이 직접 실현되는 기관임
- 지자체(헤지옹/데파르트망): 지역의 건축 유산 조사(양병페르) 및 연구 업무 수행
- ABF(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 건축 유산의 선정 절차에 관여하는 자문 기관으로 건축가로 구성된 법적 의무 기관임
- CAUE(Conseils d'Architecture d'Urbanisme et de l'Environnement): 도시, 환경, 건축에 대한 자문 위원회. 1977년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데파르트망에 설치, 세금 중 일부로 지원됨. 주로 건축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건축유산의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⁷⁾
- 20세기 건축유산의 경우에는 관련된 다양한 전문 기관의 참여 가능

• LCAP(Loi relatif à la liberté de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법

- 문화부 전반에 걸친 법령으로 문화재, 건축, 예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초기 기획 당시에는 20세기 건축 라벨 제도의 관리 규정이 부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만 포함되었으나, 하원과 상원 간 1년이 넘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됨
- 건축가 직업, 허가 업무의 면적 규정(건축가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사항), 건축적 가치가 있는 경우의 건축법·도시법 등 법적 예외 규정, 건축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등이 추가되었으며, 복잡한 보호구역(명칭과 종류)을 단일한 규정에서 등급을 구분하는 규정과 서류 및 절차 등의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하였음
- 2016년 7월 제정되고, 2016년 12월에 시행령 제정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와 이번 정부에서 관심이 높은 주거건축법 개정 논의로 지연됨 ->2018년 초로 예상

7) ABF와 달리 법적 의무는 아님.

- 20세기 건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대표(ministres) 위원회의 회원국에 대한 권고 사항 N° R (91) 13 (RECOMMANDATION N°R (91) 13 DU COMITÉ DES MINISTRES AUX ÉTATS MEMBRES RELATIVE À LA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DU VINGTIÈME SIÈCLE')의 선정 기준

- 보호 담당 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20세기 건축의 양식, 유형, 방식 면에서 유의미한 창작의 가치를 승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가
 - 특정 시기나 형식과 관련하여 이미 알려진 명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덜 알려졌을 지라도 한 시기의 역사와 건축에 있어 중요성을 가진 증거물 역시 보호 대상으로 선정 필요
 -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술, 정치, 문화, 경제, 사회사의 관점에서 가치(기여도)가 인정되는가
 -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물, 주택 단지(lotissement : 주로 계획에 의해 분양된 토지에 비슷한 양식으로 들어서는 단독주택 단지), 대규모 주택단지(grands ensembles), 신도시, 공공 공간 등 범주를 다양하게 열어둘 것
 - 내외부의 의장과 설비(équipements) 등에 이르기까지 보호 대상을 확장할 것

• Critères de sélection

Les autorités responsables de la protection devraient se doter de critères précis s'inspirant des considérations suivantes:

- l'opportunité de reconnaître la valeur des créations significatives dans l'ensemble des styles, types et méthodes de construction du vingtième siècle;
- la nécessité de retenir pour la protection non seulement les oeuvres des créateurs les plus renommés d'une période ou d'un type d'architecture, mais aussi des témoignages moins connus, significatifs de l'architecture et de l'histoire d'une période;
- l'importance de prendre en compte parmi les facteurs de sélection d'une création non seulement ses données esthétiques, mais aussi son apport du point de vue de l'histoire des techniques et des évolutions politique, culturelle, économique et sociale;
- l'indispensable ouverture de la protection à l'ensemble des composantes de l'environnement bâti, comportant non seulement les constructions indépendantes, mais aussi les structures produites en série, les lotissements, les grands ensembles et les villes nouvelles, les espaces et aménagements publics;

- le besoin d'étendre la protection aux décors extérieurs et intérieurs ainsi qu'aux équipements

※ R (91) 13에 나온 가치기준에 대한 사항은 가치 기준 자체 보다는 가치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프랑스 문화부 건물(건물의 수해 복구로 근처 카페에서 인터뷰 진행)



4.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관계자 인터뷰(2)

■ 개요

- 일시: 2017년 7월 13일(목), 17:00~19:00
- 장소: 문화부 청사 옆 café blanc(문화부 청사 수해 복구로 장소 변경)
- 인터뷰 대상자: Pascale Corré(건축 프로모션/네트워크과 과장)

■ 인터뷰 내용

- ACR 제도의 주요 내용
 - ACR 제도는 건축물의 활용(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주거 등 시대적 특성을 갖는 건축물에 대해 시간을 갖고 바라보며 소유주들의 인식을 바꾸고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존 20세기 건축유산 라벨 제도와 달리 선정 시 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선정된 건축물의 행위규제 시 정보 교환 의무 규정이 신설됨
 - ACR 제도와 지정 문화재(classé) 및 등록 문화재(inscrit)는 분리하여 관리됨 : 20세기 건축유산 라벨 제도는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되어 있어도 선정이 되었으나, ACR 제도는 중복 선정이 불가능함
 - ACR 제도에 의해 선정된 건축물의 경우, 선정 이후 취소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DRAC에서 관리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축한 이후 100년 되는 시점에 지정 및 등록 문화재로의 등재 여부 결정을 위한 재심사가 진행됨 (이는 100년이 지난 건축물만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한다는 의미는 아님)
 - ACR과 등록 문화재는 DRAC에서 선정하고, 지정 문화재는 문화부에서 선정함
 - 20세기 건축유산 라벨은 DRAC(지자체)에서 선정했으나, ACR로 변경되면서 개인이 신청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절차가 필요해졌음(시행령 제정 이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정해질 예정)
 - 20세기 건축유산 라벨 제도가 운영된 지 10년이 된 시점에 시행한 평가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 이는 지역마다 심한 편차와 부실한 관리로 인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5년 전부터 DRAC에 지원금을 증액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추후 LCAP법의 시행령이 제정되면, ACR 제도의 규정과 거버넌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20세기 건축유산 라벨과 달리 ACR은 대상이 되는 요소와 범위가

명시되어야함) 설계자와 설계자의 후손, 소유주 등에 고지할 의무조항이 신설됨

- ACR(건물+마을) 약 1,200여개가 관리중에 있음. 20세기 건축유산 라벨에서 ACR로 전환하기 전에는 약 3,000여개가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중 지정 문화재인 동시에 20세기 건축유산 라벨에 속했던 1,800여개와 100년이 지난 75개가 ACR에서 제외된 결과임
- 지자체(DRAC)에서 조사(앙병페르)하여 구축한 목록은 관리하고 있지 않음

• ACR 제도의 가치 기준

- 2015~2016년에 가치 기준 제정: 입법 과정에서 명시적인 기준이 요구됨
- 20세기 건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침 문헌인 N° R (91) 13에 명시된 가치 기준 도출 방향(1991년 채택)과 기존 DRAC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기준,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기준 등을 참고하여 6가지 가치 기준을 마련함⁸⁾
 1. 작품의 유일성(La singularité de l'œuvre)
 2. 건축/도시/조경적 계획 과정이나 기술적 실현 과정에서의 실험성과 혁신성, 작품의 기술사적 가치(Le caractère innovant ou expérimental de la conception architecturale, urbaine, paysagère ou de la réalisation technique, ou sa place dans l'histoire des techniques)
 3. 작품의 명성, 특히 작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언급하는 출판물의 수(La notoriété de l'œuvre eu égard notamment aux publications dont elle a fait l'objet ou la mentionnant)
 4. 공공 정책 참여적 측면에서의 모범성(L'exemplarité de l'œuvre dans la participation à une politique publique)
 5. 작품이 속하는 건축 사조나 사상과 연관된 작품의 선언적 가치(La valeur de manifeste de l'œuvre en raison de son appartenance à un mouvement architectural ou d'idées reconnu)
 6. 작가의 국가적/지역적 명성(L'appartenance à un ensemble ou à une œuvre dont l'auteur fait l'objet d'une reconnaissance nationale ou locale)
- 1991년에 발의된 유럽 연합의 권고 사항에 따라 프랑스에서 1999년 20세기 건축물 라벨 제도가 발의될 때만 하더라도 권고 사항 이외의 명확한 가치 기준은 명시된 바가 없어, 지금까지 20세기 건축물 라벨 제도가 운영되었고(명시되지는 않았었지만 일선에서는 이미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음), 우선은 20세기 건축물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론화를 통해 가치를 인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 ACR로의 전환 과정에서 비로소 기준이 명시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과정의 투명

8)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4308019&categorieLien=id>

성을 부각시키고 일반인에게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 ACR의 가치 기준은 유효한 기준이며 공론화의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선정 과정에서는 가치 기준에 일일이 부합하는가의 여부 보다(실제로 기준 모두를 만족시켜야 라벨에 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인식과 관점 등이 선정에 대해 동의를 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
- 문화재에 대해서도 명시된 가치 기준이 존재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담당자가 아니라서 확답을 할 수 없다고) 그간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논의의 기반이 마련된 편이며 20여명의 전문가의 심의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짐
- 가치 기준은 심사의 공통 언어로 기능하는 것이고, 엄격한 기준은 아님

• 예술과 역사의 도시와 고장 라벨(VPAH, Label Ville et Pays d'art et d'histoire)

- VPAH 라벨 제도는 1985년에 문화부가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시행한 인증제도로, 대외 홍보 보다는 지역 주민과 특히 젊은 층(교육적 측면 강조)의에게 고향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제정됨(본 목적은 중앙 정부의 인식이고 실제로 지자체 의원들은 관광 등 홍보 목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⁹⁾)
- 도시적 환경일 경우 도시(ville), 향토적 환경일 경우 소규모 읍면이 연합한 형태의 고장(pays)으로 묶어 라벨 지정
- VPAH 라벨로 인증되면 10년간 유지되며, 갱신이 가능함
- 문화적/생활환경/문화재/문화진흥/PLU 등 넓은 의미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능력이 선정 기준임
-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서류 심사 과정에 2-6년(미비 서류 보완-재심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DRAC/문화부 심사 승인, 국가자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이후 문화부 장관이 라벨을 부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해지옹의 프레페(Préfet 도지사)와 지역 의원 간 10년 협약을 체결함
- 건축/조경/조경/문화재 관련 센터 설립 의무, 라벨 담당자이자 문화적 홍보대사(médiateur) 임명 의무, 관리/운영의 보고서 매년 제출 의무가 부여됨
- 제도가 운영된 지 30여년이 되었지만, 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음

9) '예술과 역사의 도시'는 1962년 말로가 제정한 '보호지역에 대한 법(Loi sur les secteurs sauvegardés)'의 후속 조치로 1967년에 창설한 '예술의 마을(Villes d'art)'제도를 이어받고 있다. '예술의 마을'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줌으로써 관광객들이 문화유산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알게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 조직은 1985년 '예술과 역사의 마을(Villes d'art et d'histoire)'로, 뒤이어 2003년에는 '역사와 예술의 도시'로 개명된다. 이름을 바꾼 계기는 '예술의 마을'이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관광산업으로 치우쳐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상빈(2016.06), "유럽과 프랑스의 문화 관련 인증제도 연구", 「인문학연구」 v25, p.49.

- 프랑스 전 지역의 약 10% 지정되어 있음 : 전국 186개 도시와 고장이 라벨 인증 (1/3은 도시, 2/3는 고장)되었으며, 4,000코뫼(프랑스는 36,000여개 코뫼으로 구성)이 해당됨



수해 복구로 문화부 건물을 폐쇄한다는 안내문



제3장 건축 및 산업유산 활용 사례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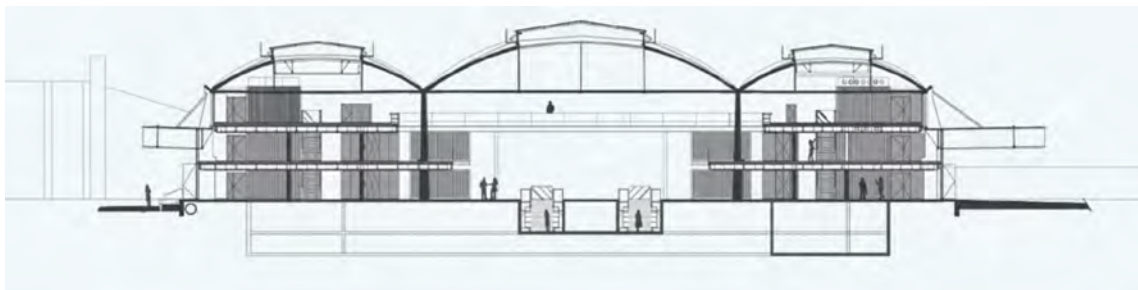
1. Halle Freyssinet(알 프레시네)

- 건축물 개요

- 위 치 : 파리 오스테흘리츠 역 인근 철도부지
- 건축연도 : 1927년-1929년
- 설 계 자 : Eugène Freyssinet¹⁰⁾
- 용 도 : (기존) 파리-오를레앙 철도회사 물류환승소, (현재) 스타트업 캠퍼스
- 리노베이션 연도 : 2014년-2017년
- 리노베이션 설계자 : Wilmotte & Associés architectes
- 규모 : 길이 310m, 폭 58m, 리노베이션 연면적 34,000m²
- 리노베이션 비용 : €250,000,000
- 내부 시설 : 3,000개의 스타트업 데스크, 8개의 이벤트 공간, 30개의 샤워실, 60개의 회의실, 26개의 스타트업 프로그램, 1개의 우체국과 팝업숍, 4개의 식당과 1개의 커피숍

- 알 프레시네의 건축적·기술적 가치

구조기술자인 Eugène Freyssinet에 의해 설계된 알 프레시네는 프리텐션 공법을 사용하여 건축하였고, 교회 건축 양식과도 흡사한 삼량식 구조로 구축된 공룡천장들의 섬세한 건축방식은 산업용도의 건축물의 공간감을 격상한다는 평을 받았으며, 설계자가 직접 고안하여 콘크리트의 공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 진동 시공 기술과 완성도 높은 시공 덕으로 현재까지 양호한 보존상태를 지닐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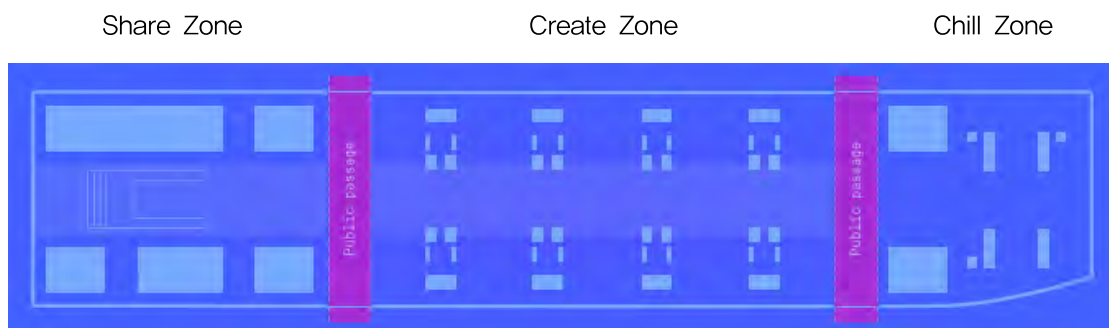
[알 프레시네 단면도: 삼량식 구조]

(출처: https://www.dropbox.com/sh/9q5hgc097dw8e8j/AABPCiDBed_0BHPwB4ojfgHsa?dl=0)

10) Eugène Freyssinet는 건축작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산업용 건축물을 다수 설계한 바 있어(작품 중 6개소가 건축문화유산으로 등재), 완공 당시부터 건축기술 전문 저널의 관심을 받았음

• 대형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활용되기까지의 과정

- 2006년까지 물류 환승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관련 산업 부지의 이전으로 인해 유휴시설이 되면서 소유자인 SNCF(프랑스 국립 철도회사)가 건축물의 처분을 희망하였고, 일대가 구획정리대상지구(ZAC, Zone d'aménagement concerté)로 지정되면서 멸실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문화재 보존 및 건축 관련 다수의 민간 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홍보활동으로 멸실을 면하게 됨
- 2006년 7월 파리 법조계에서 새로운 지방 법원 자리로 관심을 갖게 되어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총 34개 국가, 275개 프로젝트)되었으나, 최종 부지가 다른 곳으로 선정되면서 프로젝트의 실현되지 못했지만 알 프레시네의 가치와 가능성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됨
- 하지만, 이후에 알 프레시네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SNCF는 2011년 철거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심사가 보류되었고, 2012년 2월 서측 업무동을 제외한 건축물 전체가 등록문화재(inscrit)로 등록. 그러나 이 지역을 업무 및 주거공간으로 개발을 희망하고 있던 파리시에서 문화유산 등재를 취소 요청함
- 2011년 이벤트업체와 SNCF가 5년 간 사용계약을 맺은 후, 최소한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패션쇼, 전당대회 등의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함
- 2013년 Free Telecom의 대표이자 투자자인 그자비에 니엘(Xavier Niel)이 프랑스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알 프레시네를 매수함
- 프랑스의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대형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빌모트(Wilmotte & Associés architectes)에서 리노베이션을 계획하였으며, 2017년 6월 29일 개장(일반인 모두에게 개방되는 Chill Zone을 제외)하여 사용되고 있음
- 기존 건축물의 재료와 구조가 지니는 공간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삼랑 중 중랑은 거대한 오픈스페이스 형태의 협업공간으로, 측랑은 세 층에 걸쳐 삽입된 박스형 공간을 통해 다양한 스케일과 용도의 업무공간으로 구성됨



[Campus Map]

(출처: <https://stationf.co/campus/>)



Station F의 전경



Station F의 전경

Station F의 Share Zone 내부 전경



Share Zone 개별 회의실



Create Zone 내부 전경
(출처: <https://stationf.co/campus/>)

개장 예정인 Chill Zone : 일반인들도 접근 가능
(출처: <https://stationf.co/campus/>)

2. Les Frigos Building(레프리고)

- 창고가 예술가의 작업장으로 활용되기까지의 과정
 - 1921년 건립되어 음식물 저장고로 사용됨
 - 1945년 프랑스 철도회사(SNCF)의 소유로 사용하다 1970년대 폐쇄됨
 - 1985년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파리 동부 개발협회(APLD91), 임대인협회(L'Association des Locataires)의 노력으로 철거를 막아내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예술촌으로 운영
 - 2003년 파리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예술가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파리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레프리고의 외부 전경(기존 창고 모습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음)



예술가들에 의해 꾸며진 벽면

3. ENSA Paris Val de Seine(파리 발 드센 건축 학교)

- 건축물 개요

- 위 치 : 센느강과 마레쇼 대로(boulevard des maréchaux : 파리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파리를 둘러싸는 환상형 도로)가 교차하는 부지
- 건축연도 : 1890년-1891년
- 설 계 자 : Joseph Leclercq(엔지니어), Guy Lebris(건축가)
- 용 도 : (기존) 압축공기 생산 공장, (현재) 건축학교
- 리노베이션 연도 : 2002년-2007년
- 리노베이션 설계자 : Frédéric Borel
- 건축연면적 : 15,700m²
- 리노베이션 비용 : €21,300,000

- 공장이 학교로 활용되기까지의 과정

- 발드센 건축학교는 파리 디드로 대학 캠퍼스와 함께 ZAC(구획정리대상지구, Zone d'aménagement concerté) 파리 히브 고슈의 고등교육 거점지구를 구성하고 있음
- 센느강과 철도부지, 도시 순환 도로에 인접하여 산업시설로의 역사가 깊은 지역에 위치한 부지에는 19C 말부터 압축공기 생산공장인 SUDAC(Société Urbaine d'Air Comprimé)RK 자리하고 있었으며, 1994년 사용이 중단되었음
- 1891년 건설된 4개의 건축물 중 유일하게 원형대로 보존된 철골 구조의 공장 건물과 벽돌 굴뚝이 등록문화재로 됨
- 2000년 문화재로 등록된 건축물의 활용을 전제로 건축학교 부지의 사용이 결정되었고, 2002년 공모전을 통해 프랑스 건축가 프레데릭 보렐이 설계자로 선정됨
- 학교로의 활용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만으로는 공간사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된 건축물과의 조화를 전제로 한 건축물의 신축을 진행하였음
- 건축물의 조형적·구성적 정체성의 표현을 주요 건축 어휘로 사용하는 프레데릭 보렐은 기존 건축물과 신축하는 건축물이 센느강과 순환도로 등 광대한 도시스케일의 풍경에 대해 각자의 존재감을 독립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외부 설계를 주요하게 고려하였음
- 수직적 조형성과 마름도 구조로 입면의 섬세함을 더하는 트러스형 철골구조 등 외관 복원작업을 주요하게 진행하였고, 내부에는 도서관과 전시실을 계획하였음
- 기존 건축물과 신축한 건축물 사이에 위치한 벽돌 굴뚝은 보조 수직 동선을 계획하였음



파리 발 드센 건축학교 전경



학교 전면에 위치한 전시실



기존 건축물의 입면



벽돌 굴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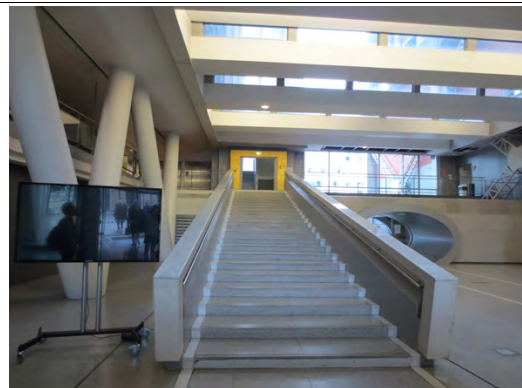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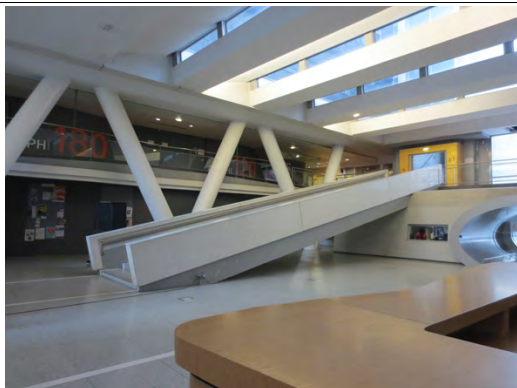
트러스형 철골구조로 된 입면



내부 홀



벽돌 굴뚝 계단출입구



내부 연결동선

4. Centre National de la Dance(국립 무용센터)

- 건축물 개요

- 위 치 : 파리 북동부에 접한 코뮌인 땡팡(Pantin)의 우르크 운하에 인접한 지역
- 건축연도 : 1972년
- 설 계 자 : Jacques Kalisz
- 용 도 : (기존) 복합 행정 청사, (현재) 국립 무용센터
- 리노베이션 연도 : 2001년-2004년
- 리노베이션 설계자 : Antoinette Robain & Claire Guieysse
- 건축연면적 : 11,178㎡
- 리노베이션 비용 : €9,800,000

- 새로운 형태의 청사의 건립과 무용센터로 활용되기까지의 과정

- 1965년 공공건축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당시 코뮤니스트 시장 장롤 리브의 주문으로 브루탈리스트(brutaliste)로 간주되는 자크 칼리스에 의해 설계됨
-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내부로부터 도출된 볼륨들이 고대 문명의 토tem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기하학적 형태의 입면과 내부는 18m 높이의 아트리움 공간을 부유하는 거대한 이중의 콘크리트 수직동선이 특징적인데, 이는 설계자가 “국민의 궁전”이라 명명하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의도를 반영한 것임
- 하지만,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거대한 공간은 단열과 방음 등의 기능적 문제를 야기시켰고, 건축물의 거대한 규모에 적응하지 못한 사용자들이 가벽과 천장 등을 임의로 추가하면서 건축적인 의도가 훼손되었음
- 청사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건축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은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게 되었고, 준공 20년만에 사용이 중지됨
- 1997년 땡팡시는 문화부와 6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은 후 다음해 문화부는 무용 문화진흥과 보급을 위해 국립 댄스 센터를 창립하고 대규모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함. 앙투와네트 호방과 클레르 기에스 두 건축가에게 리노베이션 설계를 의뢰하고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4년 국립 댄스 센터로 활용하게 됨
- 노출 콘크리트를 이용한 조형과 거대한 규모의 내부공간은 행정 청사보다는 댄스 센터에 적합한 공간적·건축적 어휘가 충분했기 때문에, 리노베이션 설계 시 기존 건축물의 형태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단열과 방음, 비상 동선 등의 기능적인 문제

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노후화된 콘크리트는 시간의 흔적은 남기 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고, 새롭게 사용하는 부재에는 콘크리트를 배제하였음
- 4층 규모의 건축물은 11개의 댄스 스튜디오(3개는 대중에게 개방되는 공연장으로 사용), 무용수 휴게실, 30여개의 의상실, 미디어텍과 영상실, 전시실, 강의실과 행정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건축물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계단실은 에르베 오디베흐 조명 디자이너에 의해 연출된 것으로, 넓은 창을 통해 건축물 외부까지 드러나는 상징적인 요소로 변모 하였음
- 공공건축물 공사비의 1%를 예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원칙을 고려하여, 바닥 마감과 실내 가구들을 건축물의 공간감과 재질감에 어울리도록 구성하였음
- 국립 무용센터로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2004년 은삼각자상¹¹⁾을 수여받았음
- 리노베이션 12주년을 맞은 2016년에는 Berger & Berger에 의해 주출입구와 1층 주요 공간(매표소, 레스토랑, 다목적 전시홀), 그리고 내부 가구 등이 정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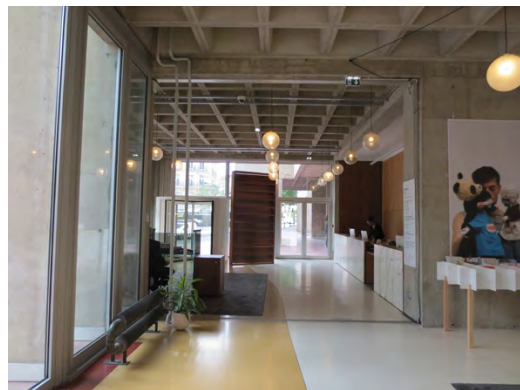
건물 외관 1



외벽 보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식당



매표소

11) 은삼각자상은 해마다 프랑스 내에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상으로, 프랑스 건축상 중 가장 역사와 권위가 깊은 상임



계단실



엘레베이터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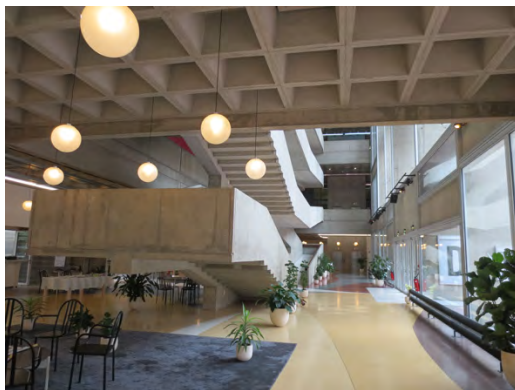
건물 외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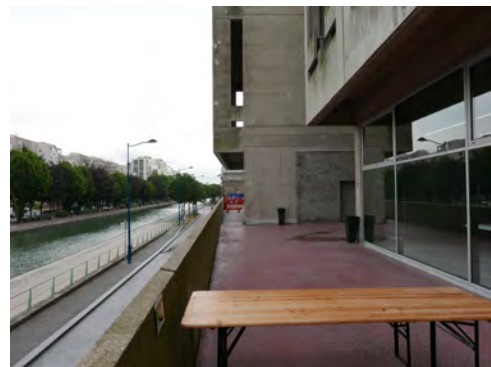
건물 내부 1



외벽 창



건물 내부 2



테라스

5. MAGASINS Généraux(мага장 제네로)

- 건축물 개요

- 위 치 : 파리 북동부에 접한 코뮌인 땡팡(Pantin)의 우르크 운하에 인접한 지역
- 건축연도 : 1931년
- 설 계 자 : 미상 (건축주: 파리 상공회의소 Chambre de Commerce et de l'Industrie de Paris)
- 용 도 : (기존) 물류 창고, (현재) 업무시설
- 리노베이션 연도 : 2013년-2015년
- 리노베이션 설계자 : Jung Architectes
- 건축연면적 : 18,000m² (리노베이션 전 연면적: 22,000m²)
- 리노베이션 비용 : €45,000,000

- 건축물 건립 배경 및 특징

- “파리의 창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가장 제네로는 우르크 운하, 파리 동역으로 연결되는 철로, 3번 국도가 인접한 물류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운하를 통해 운반된 곡물, 종이, 직물, 석탄 등의 저장소로 이용되던 건축물임
- 1930-1931년 파리 상공회의소에서 세계대전 사이에 늘어나는 물류량을 소화하기 위한 운하 확장과 항구 개발사업을 계기로 땡팡에 총 40,000m²에 이르는 물류창고를 건설(건설 당시 좌우 대칭으로 지었으나, 좌측 건축물 화재로 소실됨)
- 단순한 건축공법과 의장(철근콘크리트 구조, 벽돌벽, 파사드를 둘러싼 화물 적재용 외부난간, 동일하게 구성된 6개층, 지 지하중을 반영한 피라미드형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운하가 끼이는 지점에 웅장한 스케일로 위치하고 있어 가시성이 좋음

- 물류 창고에서 업무시설로 활용되기까지의 과정

- 1970년대부터 프랑스 농업의 변화에 따라 창고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었고, 2000년에 사용이 중단됨
- 건축물의 미사용에 따라 주변 지역의 쇠퇴가 야기될 수 있었으나, 운하와의 인접성, 독립된 건축물 배치로 인한 가시성 등으로 그래피티와 같은 스트리트 아트의 본거지이자 운하변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 우르크 운하 주변의 재개발 움직임에 의해 프랑스 대표적 부동산개발기업인 Nexity가 마가장 제네로를 인수하였고, 현재는 2016년 프랑스 대표적인 홍보대행사인

BETC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

- Frédéric Jung에 의한 리모델링 설계: 리모델링 계획 시 기존 입면과 주구조는 최대한 보존하였으며, 채광을 위한 창과 안전을 위한 금속 난간을 제외한 다른 재료의 사용은 제한하였음
- 건축물 전 층에 둘러있는 물류적재용 외부 테라스는 휴식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화물 적재를 위해 건축물 하부를 둘러싸던 1.2m 높이의 기단은 전면철거하고 물리적·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상업시설로 계획하였음



건물 전경 1



건물 전경 2



중앙 출입구



발코니



외부 창

6. Le104(르쌍까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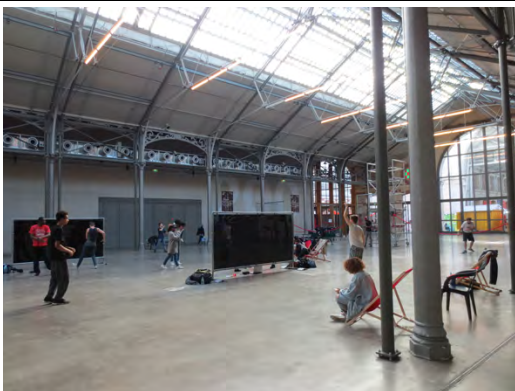
- 파리 북쪽 19구에 위치한 르쌍까르트는 1873년에 지어진 장례식장을 개조해 2008년 복합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임
- 19구는 다른 구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실업자와 청소년 보호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슬럼화된 지역의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례임
-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예술적 창의성 발달공간과 창업지원센터, 일반인들에게 상시 개방되어 있는 춤과 음악의 연습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음



르쌍까르트의 전경



르쌍까르트의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전경



춤과 음악의 연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르쌍까르트

7. Musée d'Art et d'Industrie André Diligent(안드레 딜리장)

- 건축물 개요

- 위 치 : 파리 북동부에 접한 코뮌인 땡팡(Pantin)의 우르크 운하에 인접한 지역
- 건축연도 : 1932년
- 설 계 자 : Albert Baert
- 용 도 : (기존) 수영장, (현재) 미술관
- 리노베이션 연도 : 2001년
- 리노베이션 설계자 : Jean-Paul Philippon

- 수영장이 미술관으로 변경되기까지의 과정

- 1932년 릴 출신 건축가 알베르 바에르(Albert Baert)가 설계한 건축물로, 건립 당시 아르 데코 장식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주목을 받았으며, 1985년 까지 공공 목욕탕이 딸린 시립 수영장으로 사용되었음
- 1990년 시청 안에 후베(Roubaix) 예술과 산업 미술관이 문을 열게 되었는데, 1992년부터 옛 시립 수영장이었던 라 피신느(La Piscine)로 미술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진행하게 됨
- 2001년 오르세 미술관을 설계한 장 폴 필리폰(Jean-Paul Philippon)의 주도하에 리노베이션을 진행하여 미술관으로 개장하였음
- 2016년-2018년 2,300㎡의 전시관 확장공사(1,600㎡ 신축, 700㎡ 개축)가 진행 중인데, 약 9,3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임

- 미술관의 특징

- 미술관은 20세기 건축유산 라벨(Label patrimoine du XXe siècle)로 선정되어, 기존의 부지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미술관의 안내데스크와 특별전시관은 옛 공장 자리였으며, 장식 조각품들이 전시된 수영장의 가장자리에는 저장된 물을 활용한 작은 폭포가 있음
- 수영장 중앙홀 주위의 샤워실은 도자기, 패션과 직물 등의 작품들을 위한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옛 욕조 주변의 복도에는 19C-20C의 그림 및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 식당 안에는 마호가니 목재로 된 바(BAR)와 1932년의 카페테리아라고 연도가 적힌 아연판 등의 기존 건축물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식당의 테라스 앞에

는 직물산업에 쓰이는 식물들이 자라는 내부 정원이 있음

- 미술관 아트샵은 옛 수조 여과실이었는데, 현재에도 수조탱크의 일부를 전시해두었음



미술관 외부 전경



수영장 중앙홀의 조각품 전시



기존 건축물에 연결해 증축된 홀



샤워실



수영장으로 사용되었던 당시 사진



기존 계단



샤워실 사이 복도

8. The Villa Cavrois(빌라 카브흐와)

- 건축물 개요

- 위 치 : 60 Avenue du Président John Fitzgerald Kennedy
- 건축연도 : 1929년-1932년
- 설 계 자 : Robert Mallet-Stevens
- 용 도 : (기존) 별장(저택), (현재) 전시관
- 보수/수리 연도 : 2001년

- 건축물의 특징

- 후베에서 식물염색 기업을 운영하던 폴 카브흐와(Paul Cavrois)의 가족(총 9명)과 수행원들이 거주하기 위해 1929년부터 1932년까지 4년에 걸쳐 지어진 별장임
- 로버트 말레 스테븐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아르데코라티브(Arts Décoratifs)의 영향을 받은 근대건축의 특징이 잘 보여지며 브뤼셀의 팔레 스토클레(le Palais Stoclet, 1905), 힐베르섬의 시청건물(Hôtel de ville d'Hilversum)의 벽돌,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요소 등이 반영되었음
- 내부 인테리어는 가구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납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벽면 페인트부터 조명까지 모두 건축가에 의해 계획되었음
- 엘리베이터, 라디에이터의 알루미늄 덮개, 테라스 난간, 현관 입구 장식, 조명 박스 등의 철공작업은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장 푸르베(Jean Prouvé)가 공동으로 작업하였음
- 프랑스 성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저택의 규모와 정원 또한 특징적임

- 건축물의 보수 과정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저택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전쟁 후 폴 카브흐와가 돌아와 건축가 폴 바르브에게 의뢰하여 개축공사를 진행하였음(이 때 큰 아들들을 위한 두 개의 공간이 증축됨)
- 1986년 카브흐와 부인의 사망 후 부동산 회사인 SARL Kennedy-Roussel de JP Willot가 이 저택을 사들여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자 함
- 건축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시에서 문화재 지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소유주가 전체 건축물에 대한 지정 반대와 건축물 보존상태가 좋지 못한 이유로 문화재 지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

- 1990년 12월에 건축물과 정원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화재와 노후화로 인해 훼손이 많았던 건축물의 관리는 원활하지 못했고 1992년과 1998년에 시의회와 릴 도시연합에서 건축물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음
- 2000년 문화부의 결정에 의해 2001년 국가 소유가 되면서 보수가 시작되었음
- 2001-2002년 시급한 수리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문화재 건축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4년부터 전체 복원공사가 진행되었음
- 현재 복원공사 당시에 나왔던 기존 부재 및 재료들이 지하층에 전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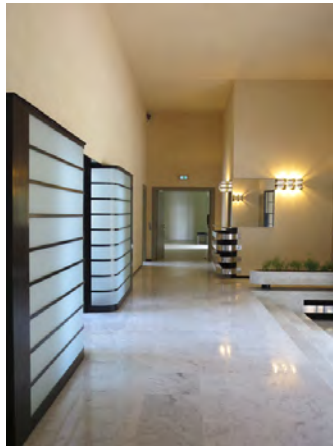
저택의 전경



20세기 건축유산 라벨 표기



주출입구



현관홀



사진을 기반으로 복원한 거실



부엌 전경



거실 전경

제4장 출장 성과

- 최신 프랑스의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 제도인 LCAP 제도와 ACR 인증 제도의 현황 파악
 - 2016년에 제정된 LCAP제도는 건축을 포함한 문화와 예술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법령으로, 100년 이내의 근현대 건축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주목
 - 20세기 건축유산 제도가 ACR 제도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ACR 제도의 시행 방향에 대하여 단계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DRAC, 문화부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
- 프랑스의 근현대 건축유산 제도의 변화와 관련 논의 과정을 통해, 국내 근대건축물 관련 제도의 관리 조직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지자체와 DRAC에서 지역의 건축유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벨 제도와 지정 및 등록 문화재 제도에 적용 여부를 판단
 - 기초조사, 라벨/지정/등록 등의 심의, 현상 변경 등 건축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과정에 지자체, DRAC, 문화부 등의 행정 전담기관 외에 ABF와 CAUE 등 전문가 집단의 공식/비공식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단계가 포함됨
 - 제도적 절차에 따른 관리와 규제 외에, 건축유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논의의 과정을 공론화하거나 홍보
- 프랑스 근현대 건축유산의 가치기준과 가치 기준의 도출 방식을 통해, 국내 근대건축물의 가치 기준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건축물의 가치 기준을 객관화 또는 정량화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치를 논의하는 중심 어휘로 사용
 - 가치 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조사와 논의를 통해 대상을 결정하고, 이들의 가치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
 - 가치 기준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으며, 가치 기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논의를 통해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 중시

[부록] 취득자료



문화부 안내 책자



프랑스 문화부 50년 기념 건축물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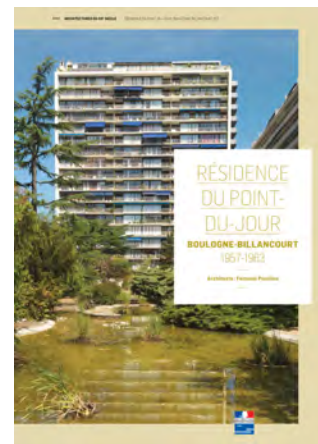
문화부 통계 자료(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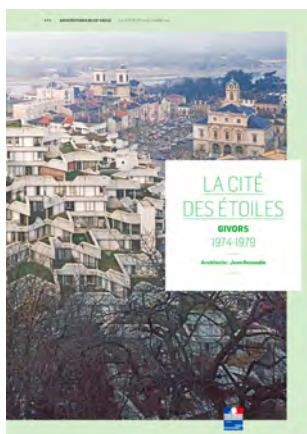
20세기 건축유산에 대한 유럽연합의 권고(R(91)13)



20세기 건축유산 사례: LA CITÉ DU WIES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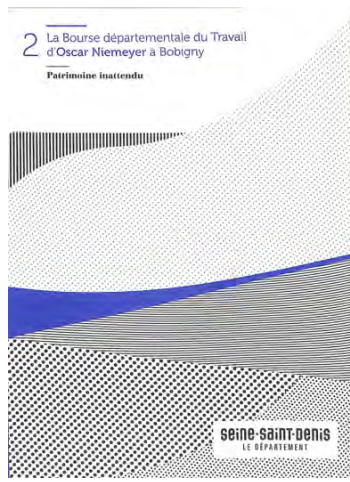
20세기 건축유산 사례: résidence du pointdu-j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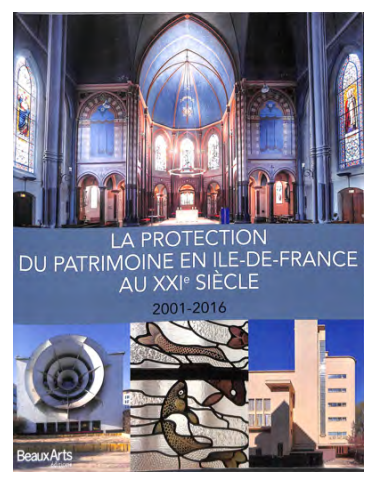
20세기 건축유산 사례: LA CITÉ DES ÉTOILES



Babcock & Wilcox 산업유산
안내 브로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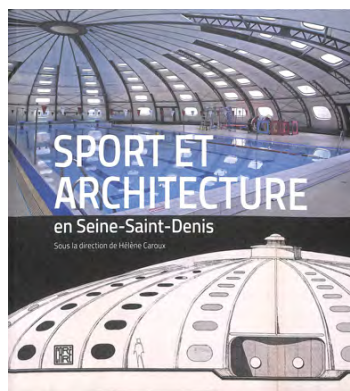
Oscar Niemeyer의 Bourse
départementale du Trav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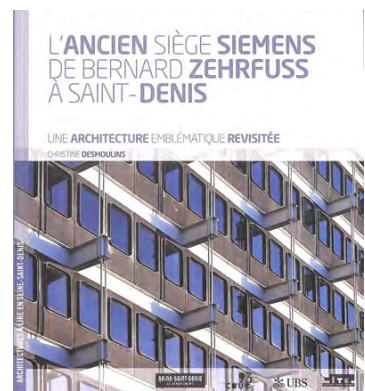
일드프랑스 20세기 건축유산의
보호(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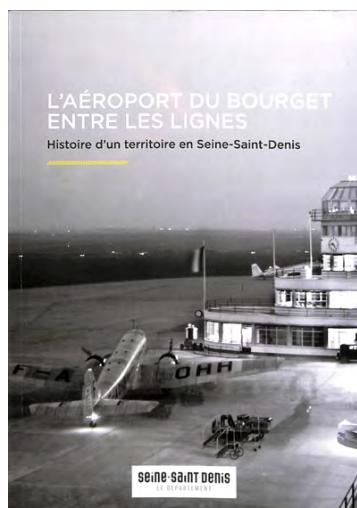
Aulnay-sous-Bios의 산업유산
안내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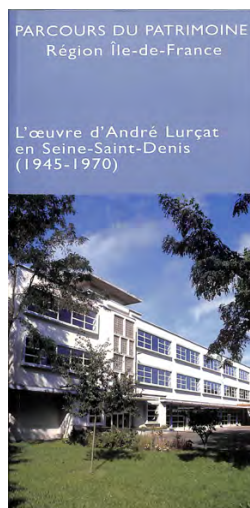
센생드니의 스포츠 관련 건축유산
안내책자



Bernard Zehruss의 Siemens
본사 리노베이션 안내책자



센생드니 Bourget공항(산업유산)의
역사



일드프랑스의 건축유산:
André Lurçat의 작품



Villa Carois의 건축 연혁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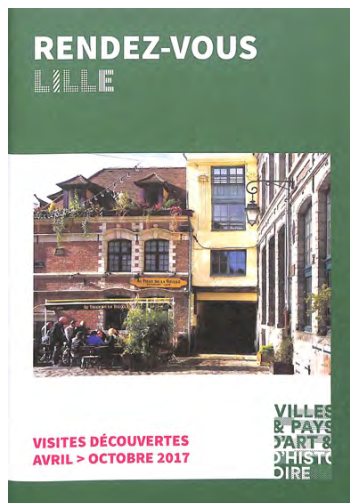
지정문화재 Villa Cavrois 안내 브로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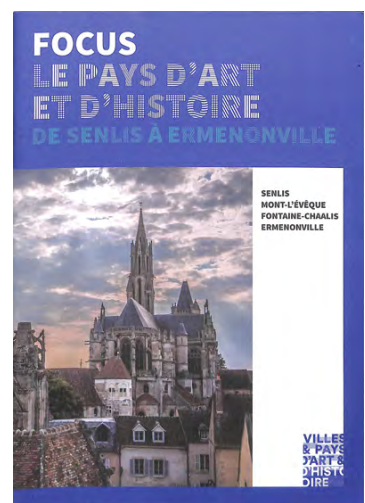
앙드레 딜리장 미술관 브로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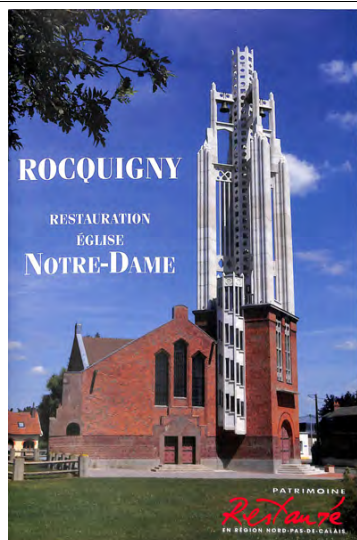
후베(Roubaix) 건축유산 안내책자



VPAH 사례: Li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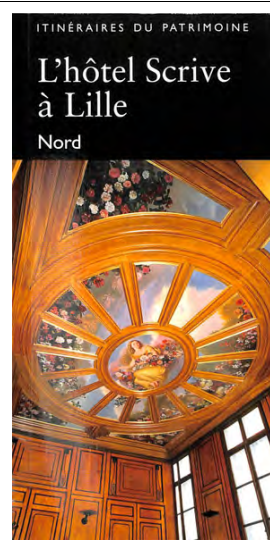
VPAH 사례: De Senlis à Ermenonville



호끼니 노트담 복원 안내 책자



오드프랑스 DRAC 건물 브로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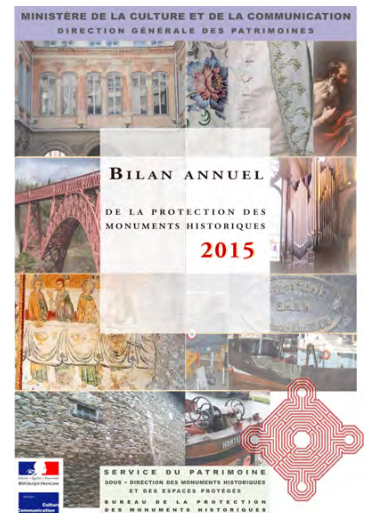
오드프랑스 DRAC 건물 안내책자



건축유산 관리 메뉴얼



등록문화재 관리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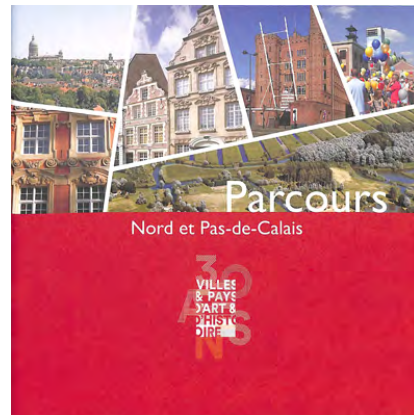


건축유산 보호 보고서(2015)

Le Label Patrimoine du XX^e siècle



20세기 건축유산 제도 소개 자료



노드파드칼레의 VPAH 소개